소통으로 신뢰받는 의회 함께 만드는 행정수도 세종

세종특별자치시의회

보도자료

제공일자	2026. 11. 13.(금)	**사진 · 영상**	사진(○), 영상(X)
보도일자	2026년 11월 13일(금)부터		
담당부서	경제문화전문위원실	**담당자**	장래복 사무관(044-300-7531) 김다현 주무관(044-300-7534)

세종시의회 경제문화위원회, 제2회 추경 심사…
예산 집행부터 사업 성과까지 두루 살펴

- 기업유치 지원부터 농촌돌봄서비스까지… 사업 부진 지적하고 개선 방안 마련 주문 -

세종특별자치시의회(의장 안신일) 경제문화위원회(위원장 김효숙)는 13일 제110회 정례회 제1차 회의를 열고, 202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변경안 등을 심사했다.

이날 위원회는 첨단기업 유치 임차료 지원사업 공공위탁(변경) 동의안을 비롯해 경제산업국과 도농상생국, 문화체육관광국 등 소관 부서의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변경안을 심사해 모두 원안가결했다.

위원들은 이번 심사에서 주요 사업의 예산 집행 현황과 추진 실적을 살펴보고, 당초 계획대로 추진되지 못한 사업의 원인을 짚으며 실효성 있는 개선방안 마련을 주문했다.

김동호 부위원장은 장욱진 생가 기념관 건립사업과 관련해 시민들이 쉽게 방문할 수 있도록 시설 접근성을 개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개관 이후에도 많은 시민이 찾을 수 있도록 구체적인 이용 활성화 방안을 마련해달라고 당부했다.

김동빈 위원은 어려운 재정 여건 속에서도 공공시설의 안정적인 운영이 중요하다고 강조하며, 한정된 예산을 효율적으로 활용해 시민들이 시설을 이용하는 데 불편이 없도록 힘써 줄 것을 당부했다.

윤성규 위원은 기업유치 지원사업의 추진 실적이 저조한 점을 지적하며, “사업 초기에는 어려움이 있을 수 있지만, 다음 해에도 실적이 부진하다면 그 원인을 되짚어봐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기업 현장에서의 소통을 강화하고, 사업 추진 과정의 문제점을 개선하는 등 보다 적극적인 기업 유치 노력을 주문했다.

김창연 위원은 농촌돌봄서비스 지원사업이 예산 축소와 사업 부진으로 종료되는 데 아쉬움을 표하며, “취약계층과 고령자를 위한 의미 있는 사업인 만큼 집행부가 추진 과정의 문제점을 적극적으로 살피고 개선 방안을 마련했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사회적 약자를 위한 사업이 충분한 개선 노력 없이 중단되지 않도록 각별한 관심을 당부했다.

김효숙 위원장은 로컬브랜드 거리조성사업의 예산 감액과 관련해 선정 대상이 없다는 이유로 사업을 축소하기보다 차순위 대상 검토와 사전 컨설팅 등 실질적인 보완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어려운 재정 여건 속에서 편성된 예산인 만큼 집행 가능성과 사업 성과를 충분히 고려해야 한다”며 “사업 추진 과정의 문제점을 개선하고, 시민과 기업이 변화를 체감할 수 있도록 현장 중심의 개선 방안을 마련해 달라”고 당부했다.

한편, 경제문화위원회에서 심사한 202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변경안은 오는 23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사를 거쳐 25일 제3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예정이다.